

1 제18367호 2판
2009년 5월 16일 토요일

'아이리스'로 5년만에 드라마 복귀 김태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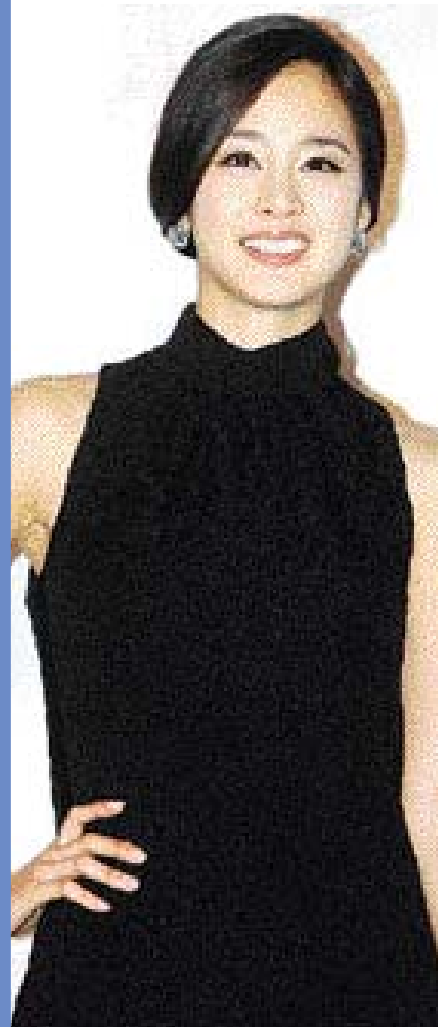
“액션 배우고 체중 감량 카리스마 기대 하세요”

“지금껏 했던 작품 중에서 가장 진지하게 준비한 작품입니다.” 드라마 '아이리스'로 5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하는 김태희가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다.

최근 열린 '아이리스'의 제작발표회에서 김태희는 “오래전부터 출연이 결정된 작품이고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러브 스토리 인 하버드' 이후 스크린에만 전념했던 김태희는 “브라운관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하러니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리스'는 한반도에서 흑시 벌어질지 모르는 2차 한국전쟁을 막기 위해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NSS(국가안전국) 소속 요원들의 이야기다. 김태희는 NSS 최고의 프로파일러 요원 최승희 역으로 동료인 김현준(이병헌 분)과 진사우(정준호)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다.



김태희는 “NSS 요원으로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안 된다. 그동안 액션 스톱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체중도 2~3kg 감량했다. 평소엔 스트레스 안 받고 먹고 싶은 것 먹는 스타일인데 이 작품을 위해 운동도 꾸준히 했고 먹는 것도 조절했다”고 말했다.

“최승희는 요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철하고 치밀하지만, 드라마에서는 멜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여자로서 사랑에 빠졌을 때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모습과 많이 다르다기보다는 요원으로서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는 일본 로케이션 촬영에서 김현준 역의 이병헌과 멜로 연기를 펼쳤다.

그는 “일본 촬영이 드라마의 첫 촬영이었는데 처음 호흡을 맞추는 이병헌 선배님과 아직 낯선 상태에서 강도 높은 액션씬을 많이 촬영해야 해 부담이 컸다”며 “다행히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잘 찍었다. 보는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을 정도”라며 웃었다.



“관객·무대 있으면 그곳이 나의 고향”

뮤지컬 출연하는 박·상·원



“어디든 관객이 있고 무대가 있는 곳이 나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하든, 연기를 하든, 무용을 하든, 땀과 열정이 있고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모두 소중한 것이죠. 설사 그곳이 밤무대일지라도요”

드라마 '미워도 다시 한번'을 통해 중년의 나이에도 변함없는 인기를 과시한 텔런트 박상원(50)이 이번에는 뮤지컬 무대에서 관객과 만난다.

7월 개막하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에서 '졸리안 마쉬' 역을 맡아 LG아트센터 무대에 설 예정. 주인공인 시골 소녀 페기 소어를 브로드웨이 스타로 만든 열정적이면서 냉혹한 연출가 역이다.

7월 개막하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에서 '졸리안 마쉬' 역을 맡아 LG아트센터 무대에 설 예정. 주인공인 시골 소녀 페기 소어를 브로드웨이 스타로 만든 열정적이면서 냉혹한 연출가 역이다.

대중에게 텔런트로 익숙한 박상원은 30여년 전 춤꾼으로, 또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서면서 배우 인생을 시작했다.

남자 무용수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1970년대 후반 현대무용, 발레, 한국무용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무용수로 활동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무대를 누볐다.

연기 데뷔작은 뮤지컬 '저저서 크라이스트 슈퍼스타'(1979년). 당시 무명이었던 그는 '브로드웨이 42번가'의 '페기 소어'처럼 오디션을 통해 하루아침에 주역으로 발탁됐다.

“고 추송웅 씨, 윤복희 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광부 장관 등 당대 스타들이 출연했던 작품인데 당시 유망주였던 유인촌 씨가 방송 스케줄 때문

“박수를 지독히 사랑하지만 지독히 듣지 않으려 해요 그 소리에 멍들면 안되니까”

에 공연이 펄크 날 위험에 처했어요. 오디션을 통해 '빌라도' 역을 대신할 배우를 뽑기로 했는데 예수를 비롯한 모든 배역을 꿰고 있었던 제가 공연 3일 전에 캐스팅됐죠. 사흘 밤낮을 연습해 줄지에 국립극장 무대에 서게 됐으니 '브로드웨이 42번가'의 스토리가 30년 전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난 셈이죠”

이후 '가스펠', '애니', '셀부르의 우산' 등 수많은 뮤지컬에 출연한 그는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공연장은 국립극장과 지방 시민회관 정도였는데 뮤지컬 배우로서, 또 무용수로서 전국의 모든 공연장을 다 뛰어나왔다”고 회고했다.

30년간 연기자로서 관객과 시청자 앞에 서 온 그는 배우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와 함께 2년 전 박연남 공연제작소를 설립하고 공연을 제작해왔으며, 모교인 서울예대 연기와 초빙교수로서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극단 동량레퍼터리의 대표도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첫 사진전을 열고 사진집을 내면서 사진작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고, 1995년에는 화가로서 미술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방송과 뮤지컬, 사진작업을 번갈아 하는 게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작용 같아요. 그러면서도 세 작업이 연장선에 있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죠.”

반듯하고 자상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각인돼 있는 그는 월드컵전, 다일공통체, 한국근육병재단 등 20여개의 단체와 10년 넘게 인연을 맺으면서 사회환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박씨는 “사회환원 활동은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좋게 봐주셔서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며 웃었다.

30년간 연기 경력을 쌓아온 그에게 젊었을 때와 지금 배우로서 무대에 서는 느낌이 다른지를 물었다.

“그때는 어린 시절이었고 이제야 젊은 시절 아닌가요?(웃음) 나이가 들수록 더 부담감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후배들이 많아지니 열심히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위기의식'이라는 단어는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빼놓지 않았을 정도로 늘 중요하게 생각해 온 키워드입니다. 박수를 지독히 사랑하지만 지독히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도 그 때문이죠. 박수소리에 멍들면 안되니까요.” /연합뉴스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庚完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출판일자 2200-511
편집국안내 222-4918 <팩스 222-8005>
대표부 2200-629 <광고이메일>
정치부 2200-616 <팩스 227-9500>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팩스 227-9500>
사회2부 2200-619 <팩스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28 <팩스 227-9500>
어린이·청소년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팩스 227-9500>
사진부 2200-690 <팩스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43년 전통의 한국전화번호부(주)

광고 접수실...

2008년 10월 10일 발행

2008년 10월 10일 발행

2008년 10월 10일 발행

2008년 10월 10일 발행

한국전화번호부(주) | 광고문의: 512-1144, 080-777-1144